1위 ABC 공인 유료·발행부수 4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1년 6월 25일 금요일
www.sportsdonga.com

주말 스토리 | 아마 시절 시구·시타로 인연 맺은 프로야구 스타들

# 원태인·김휘집,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삼성 원태인

키움 김휘집

'될 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대로다. 시구 또는 시타로 인연을 맺은 유망주들이 단순히 팬에 그치지 않고 프로선수로 성장해 당당히 팀의 미래로 떠올랐다. 삼성 원태인, 키움 김휘집, 장재영, KT 신범준은 어린 시절 지금의 소속팀이 선정한 시구 및 시타자로 프로 그라운드를 밟은 뒤 가슴 속에 품었던 소중한 꿈의 꽃망울을 터트린 덕분에 야구팬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스포츠동아DB·유튜브 캡처

키움 장재영

KT 신범준

## 원태인, 초등학교 입학 전 대구구장 시구
## 야구천재로 소문 자자…1차 지명 삼성행

## 키움 김휘집, 초등생 때 목동서 시타행운
## "뼛속부터 히어로즈팬"…마침내 키움 유니폼

## 이승현·장재영·신범준도 현 소속팀서 시구

매일 같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을 견디는 이유. 동경하는 스타들과 함께 그라운드에서 뛰는 자신을 그리기 때문이다. 아마추어선수에게 프로경기장은 꿈의 무대다. 소년들에게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며칠 전부터 잠을 설쳐가며 설렘을 감추지 못한다. 잠시지만 평생의 동기부여가 된다.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에는 어린 시절 프로야구장에 섰던 추억을 지닌 이들이 여럿 있다.

**●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구나"**

2010년 4월 23일. 김휘집(19·키움 히어로즈)에게 11년 전 이날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다. 목동 KIA 타이거즈-넥센 히어로즈(현 키움)전. 히어로즈 리틀야구단이 있는 양목초 3학년 김휘집은 시타자로 나섰다. 그해부터 야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그에겐 행운과 같은 기회였다. 포수 강귀태(은퇴)는 타석에 선 김휘집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주먹 하이파이브를 건넸다. 김휘집은 "언제 다시 프로 타석에 설지 모르니 시원하게 스윙하고 오겠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도 기억난다"며 "매일 목동에 가서 히어로즈를 응원하곤 했다"고 회상했다.

키움은 2021 신인드래프트 2차 1라운드에 김휘집을 지명했다. 신일고에서 아마추어 최고수준의 내야수로 평가 받았기에 별다른 이견도 없었다. 김휘집은 "지명 직후 많이 놀랐다.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구나'라고 한참을 생각했다"고 돌아봤다.

**● "2019년 삼성 1차지명, 10년 전에 정해졌다"**

10여 년 전의 감동을 생생히 기억하는 것은 김휘집뿐이 아니다. 원태인(21·삼성 라이온즈)은 2005년 4월 30일 대구 KIA전에 앞서 시민구장 마운드에 올라 시구를 했다. 원민구 경복중 감독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야구가 익숙했고, 지역방송 프로그램에 '야구천재'로 소개되며 일찌감치 유명세를 탔다. 시구 당시는 초등학교에도 입학하기 전. 이후 경복중~경북고를 거치며 대구 지역 에이스로 이름을 떨쳤고, 2019 신인드래프트 1차지명으로 삼성 유니폼을 입었다.

홍준학 삼성 단장은 원태인 지명 직후 "2019년 1차지명은 10년 전에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없었다. 어떤 모습으로 지명할지 궁금했는데 기대대로 잘 성장해줬다"며 스토리를 더했다. 2021년 1차지명자 이승현(삼성), 장재영(키움), 신범준(KT 위즈)도 아마추어 시절 현 소속팀 시구자로 초청된 바 있다. 인연의 힘이 이렇게 무섭다.

**● 다양한 스토리, 풍성해지는 KBO리그**

시구·시타자 선정은 구단의 재량이다.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부터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사들까지 다채롭다. 어찌 보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아마추어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이들의 성공을 지켜보는 것은 구단의 자산이 된다. 키움 관계자는 "시타로 인연을 맺었던 리틀 출신 김휘집이 훌륭하게 성장해줘서 기쁘다"며 "제2, 제3의 김휘집이 나올 수 있도록 유소년야구 저변 확대와 어린이 야구팬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삼성 관계자 역시 "지역 출신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된다면 행사에 의미가 더 크다"며 "앞으로도 프로구단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40년 역사. '야구인 2세'가 흔해졌을 만큼 KBO리그에는 다양한 스토리가 쌓이고 있다. 시구와 시타를 하던 꼬마들이 어엿한 프로선수로 성장한 장면은 팬들에게 흐뭇함을 안겨준다. ▶ 프로야구 관련기사 3·4·6면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 이번엔 클럽판 한·일전이다

## 대구·포항, 주말 일본팀과 ACL 한판승부
## 울산·전북도 아시아 정상 향해 첫판 시동

K리그1(1부) 울산 현대가 아시아 정상을 지키기 위한 여정에 나선다. 26일 오후 11시(한국시간) 태국 방콕 빠툼타니 스타디움에서 비엣텔(베트남)과 2021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조별리그 F조 1차전을 벌인다.

지난해 ACL에서 2012년 이후 8년 만에 정상을 탈환한 울산은 최근 10경기 무패(5승5무·FA컵 포함)다. 홍명보 울산 감독은 "사흘에 1경기, 총 6경기를 치른다. 안정된 경기력을 위해 체력안배도 중요하다. 방심 없이 우리 스타일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 2016년 이후 통산 3번째 우승을 노리는 전북 현대는 26일 오전 1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치앙라이(태국)와 H조 1차전을 펼친다. 출국 전 김상식 전북 감독은 2006년을 기점으로 5년마다 결승에 오르는 '5년 주기설'을 떠올렸다. "올해가 결승에 오를 타이밍이다. 10년 우승 주기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방콕에서 랏차부리(태국)를 누르고 G조 선두에 오른 포항 스틸러스와 타슈켄트로 향한 I조의 대구FC는 클럽 한·일전을 앞두고 있다. 먼저 포항이 25일 오후 7시 나고야 그램퍼스(일본)와 맞붙는다. 김기동 포항 감독은 "점점 좋은 경기를 할 것"이라며 연승을 다짐했다.

대구는 27일 오전 1시 일본 J리그 챔피언 가와사키 프론탈레와 격돌한다. 전 국가대표 수문장 정성룡이 골문을 지킬 가와사키는 안정된 수비가 인상적이다. 하지만 대구는 두렵지 않다. 최근 10경기 무패의 상승세를 발판삼아 K리그의 힘을 보일 참이다. 이병근 대구 감독은 "높이를 활용한 세트피스로 상대를 공략할 것"이라며 필승의지를 전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알립니다

## 스포츠 취재 경력기자 오늘 마감

스포츠동아가 대한민국 스포츠 미디어를 이끌어 나갈 스포츠 분야 취재 경력기자를 모집합니다.

2008년 창간한 스포츠동아는 1등 스포츠신문으로 우뚝 섰습니다. 2018, 2019, 2020,2021년 한국ABC협회의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평가에서 스포츠신문 1위, 일간신문 8위로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포츠 발전과 함께 성장해 온 스포츠동아는 젊은 인재와 함께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스포츠동아와 동행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 부문 : 스포츠 취재(축구 농구 아마추어 스포츠 등) 경력기자 0명
- 지원 자격 :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언론 등 경력 3년 이하
- 전형 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대상자 개별 통보)
-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명 기사 5건 (hwp,doc 파일, PDF로 제출)
- 접수 기간 : 2021년 6월 14일(월)~25일(금)
- 접수 방법 : 이메일 ten06sy@donga.com
- 문 의 : 스포츠동아 경영기획실 02-361-1608

CJ CHEILJEDANG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착즙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즙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